

하나님의 신을 자신 속에 모셔야 구원을 얻는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것을 이 사람이 11년전서부터 말했습니다. 사람을 마귀에게 빼앗긴 후 육전 년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되찾지 못했고 점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육전 년 만에 이기고 죽인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점령한 것입니다. 우리제단 이름을 승리제단이라고 붙인 것은 하나님이 승리한 제단인고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제단 나오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우리제단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이긴자가 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이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살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신부가 되려면 신랑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고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신랑을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랑을 모시기만 모시면 바로 부부일신이 되고로 하나님이 「이긴자」이지만 덩달아서 신부도 이긴자가 됩니다. 원리가 그런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역시 승리자 하나님을 모셔야 영생이지, 승리자 하나님을 내 맘속에 모시지 않고서는 구원과는 상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체계입니다.

그런고로 전도관에서 “이루어져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승리제단에 와서는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줘야,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주어야 하나님이 좌정을 하시지, 인정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귀여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점령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

이 사람이 예배 인도를 하면 이슬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슬인고로 흥과 티가 없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이 검컴하다든지 마음이 약한 것이 손톱만치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입에서 나오는 학설을 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는 증거죠? (예)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 상에 구원론, 불경 상의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을 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흠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죄가 나라는 의식이,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요,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천당엔 사람이 못 가고 하나님이 되어야 들어간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물이 신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야 새로운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요, 이 세상의 물질 자체가 신인고로 공기도 신이요 나무도 신이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이 사람이 논합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빨갱이 사상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까닭은 바로 공산주의 유훈론, 신이 없다는 논리를 완전히 부셔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긴자가 이 세상 만물이 신이라고 논하니까 바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식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그대로 성경과 불경 속에 쓰여 있는 데도 눈을 뜨고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장님입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부터 육전 년 전에 사람의 신이 되는 마귀의 영에게 점령이 되어서 마귀 영이 주체영이 됴므로 말미암아 그대로 마귀의 종이 되는 인간의 몸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말, 새로운 학설을 말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도록 조리 있게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새로운 학설을 듣고 인정이 되는 고로 온 거죠? (예)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한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고도 소상하게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 늙지 않는 비결, 병 걸리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피가 썩어서 병 걸리고, 피가 썩어서 늙고, 피가 썩어서 죽는다고 말하는데 과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하자가 없는 학설입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하자가 없어요. 논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완전한 논리입니다.

이 사람이 “저거 생긴 대로 노네.” 하는 평범한 세상 말을 인용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을 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객쟁이처럼 생긴 사람 객쟁이 노릇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도록 조리 있게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새로운 학설을 듣고 인정이 되는 고로 온 거죠? (예)

을 평생시에 하면 명탕구리 피로 변해서 명탕구리 얼굴과 몸으로 변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저거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말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논리에 대한 반박할 논리를 만들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을 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마음대로 몸이 변하는고로 병 걸리는 사람은 병 걸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병 안 걸리는 마음을 가지면 병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늙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안 늙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음먹는 대로 생긴다는 것이 진리의 학설인고로 이런 완전한 학설이 입에서 나올 정도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피로 변한 다음 하나님의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된다. 그런고로 바로 이것이 성경으로 거듭나는 학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성령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구원론이라는 걸 강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가짜 구원론을 만들어 진짜 구원론을 가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전에 사람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며, 다시 하나님이 되지만 되면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이므로 “사람이 있는 곳은 사람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천당 간다고 말한 예수는 거짓말쟁이요,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은 말을 못 하니까 죽어서 간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죽은 사람이 말하는 것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당 가는 것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영이라는 건 생명이요, 생명이 영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1장1절 이하에 쓰여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잠언서 4장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영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말하지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생명이 마음이나 생명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죽을 때 생명이 죽는고로 사람이 죽는 거지, 사람의 생명이 떠나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이 생명이요, 생명이 영이라고 했는데, 생명이 죽었다면 영이 죽은 겁니다. 죽은 영이 어디를 갑니까?

성경 불경 전체를 이렇게 더듬어보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의 몸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자체가 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성령 자체가 신인고로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 하늘나라에 있지 사람은 없다,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요, 사람이 구원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1992년 11월 8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2)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란 광야에 가다

137세의 아브라함이 기랴트아르바(헤브론)에서 브엘세바의 남쪽 네게브로 이주한 이듬해에 죽음을 앞 둔 채 하갈을 방문했습니다. 둘째아들 이삭을 대동한 아브라함은 바란 광야에 살고 있는 하갈과 첫째아들 이스마엘의 집에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하갈을 위로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서 있는 청년이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하갈은 한 손으로 이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두 손으로 하갈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다른 한 손으로 이스



죽기 전에 하갈이 두 형제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의중계 지내고 화목하라고 당부하다

《2장 이삭의 하나님》 (2)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란 광야에 가다

마엘의 손을 잡고 그 역시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셨습니다. 하갈은 두 형제에게 의중계 지내고 화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은 서른여덟 살이요,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쉰 두 살이었습니다. 이제 하갈은 자신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바란 광야의 이스마엘 아들집을 방문했는데, 이는 큰아들 이스마엘이 일곱 살 때 헤어진 후 두 번째 상봉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란 광야의 방문은 아브라함 120세에 자신이 판 우물 곁에 영생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던 그해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마엘 34세 때 어머니 하갈이 신부감으로 고른 애굽의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란 광야의 방문은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인 후에 있었습니다.

장하는 에셀나무를 심던 그해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마엘 34세 때 어머니 하갈이 신부감으로 고른 애굽의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란 광야의 방문은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인 후에 있었습니다.

《2장 이삭의 하나님》



왼쪽 천막: 하갈과 이스마엘, 가운데 천막: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 오른쪽 천막: 그두라와 여섯 아들들. The image ... shows Abraham with the three women in his life. In the center are Sarah and Isaac; on the left are Hagar and Ishmael and on the right are Keturah and he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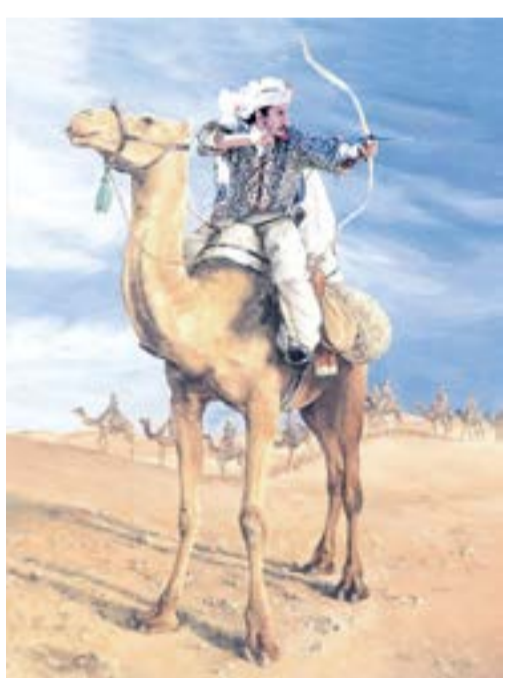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머니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만년을 큰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지내다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바란 광야에 있는 큰아들 이스마엘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네게브의 '브엘라해로이'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140세 이후부터 생을 마감하는 175세 때까지 35년간의 만년을 이스마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두 아내(사라와 하갈)를 여원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동방(아라비아) 출신의 그두라 여인을 후처로 주선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4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앓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눅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삭의 가족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복형 에서의 보호를 받았다

한편 용맹스럽고 활 잘 쏘는 강력한 부족을 거느린 이스마엘에 대해서 잘 아는 블레셋사람들은 이삭의 가족을 함부로 넘볼 수 없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비록 이복형제이지만 의리와 신의가 두렵다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부족은 브엘세바까지 영향력을 미쳤지만,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브엘라해로이는 오히려 바란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의 영향력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이삭의 큰아들 에서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새로 맞이했습니다(창28:8-9). 그 이유는 에서 마흔 살에 가나안 사람의 딸 유딧과 결혼했지만 그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잘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



활 잘 쏘는 강력한 부족을 거느린 이스마엘 (창 21:20)

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헷 족속의 유딧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헷 사람의 영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의 아브라함 가족 묘지는 오늘날까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족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노바못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안젤라